

한국 천주교 ‘연도(煉禱)’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여 춘 자*

국문초록

한국 천주교회에는 ‘연도(煉禱)’라고 하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독특한 방식의 위령기도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신 안에서의 영적 변환과정’을 위한 ‘정신적 용기(psychic container)’로서의 ‘연도의례’가 담고 있는 상징성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다.

연도의례는 또한 지옥도 천국도 아닌 ‘중간상태’에 있는 연옥 영혼을 위한 사후 심판의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로서 산 자인 상주와 죽은 자인 망자(亡者)가 함께 통과의례의 구조인 분리(separation), 전이(transition), 통합(incorporation)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특히 중간상태인 전이단계에서 상주와 망혼이 특별한 연대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연도의례에서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재생적 사건으로 바라보며, 연도의례의 상징적 과정은 죽음의 혼돈과 정화와 재생을 통한 낙원회복의 영적변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과 부활에 의한 영적인 재생과정은 집단적 무의식과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하느님의 은총과 이미 낙원에 들어가 있는 성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의식의 인식과 통합 즉 자기 실현은 의식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의식의 수준을 넘어 서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은총에 힘을 입은 연옥 영혼이 구체적인 정화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느님의 세계와 통교할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얻고 하느님과 합일의 경지에 이르러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정화과정과 중심화를 통한 자기 인식의 길에 도달한 내적 인간, 즉 변

접수일 : 2016년 5월 17일 / 심사완료 : 2016년 6월 2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6월 18일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환된 인격이 되는 자기실현을 의미한다 하겠다.

입문의례로서의 연도의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속고를 위한 목적성을 지닌 개성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산 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도를 바치는 의미는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심 단어 : 연도 · 연옥 · 정화 · 재생 · 개성화과정.

들어가는 말

천주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또한 세상에서 죄의 벌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연옥(煉獄, purgatorium, 정화소)에서 정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연옥 영혼들은 이미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산 자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상(喪)을 당하면 빈소를 지키며 연옥 영혼의 속죄와 부활과 영원한 안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령기도를 바친다. 특히 한국 천주교회에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독특한 방식의 위령기도가 있는데, 이를 연도(煉禱, preses pro defunctis)라 부른다.

용은 죽음 뒤에도 삶이 현재를 넘어 무제한의 연속성을 지니고 계속 이어진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은 인류의 태고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이자, 신비로운 삶에 가득 찬 원형이며, 우리 자신이 전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

이부영도 아득한 옛날부터 사후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이 상상하고 또 상상하여 죽음과 사후세계의 신화를 만들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며, 상상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환상으로 경험한 것, 배워서 아는 것, 보고 들은 것, 집단적 의식세계의 자료들을 그 상상에 섞어 자료를 다채롭게 한다고 말한다.²⁾ 연도의례도 그렇게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이 일어날 때의 정신적 용기(psychic container)의 역할을 하는 의례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심리 상태를

1) 아니엘라 야훼 엮음, 이부영 역(2000): 《C.G.Jung의 회상, 꿈 그리고 思想》, 집문당, 서울, pp341-370.

2) 이부영(2012):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서울, p393.

표현한다고 용은 믿었다. 그래서 입문의례의 상징적 과정을 “정신 안에서의 영적 변환과정(spiritual process of transformation in the psyche)”³⁾이라고 말하며, 죽음과 부활에 의한 영적 재생과정은 집단적 무의식과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회복이라고 설명한다.⁴⁾

본 논문은 한국 초대교회 때부터 바쳐온 입문의례로서의 연도의례에서 인간 의식의 전승뿐 아니라 정화, 재생, 영원한 생명 등의 풍부한 원형적 상징들을 만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안에서의 영적 변환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용기’로서의 연도의례가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심리학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통과의례로서의 연도의례

천주교의 연옥에 대한 믿음은 불멸성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죽음에서 되살아난다고 할 때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자크 르 고프(Jacque Le Goff)는 불멸성이 일회적인 삶을 통해 얻어지는 것일 때 연옥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도록 주어진 보완적 장치였다고 말한다. 즉 죽은 자들은 중간적 저승인 연옥에서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시련은 산 자들의 영적 도움 즉 연도에 의해 단축될 수 있다는 개념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⁵⁾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변환이 이루어지는 입문의례로서의 ‘연도의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세상에서 죄의 벌을 못 다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화하는 연옥에서의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죄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한국 천주교회 초기 때부터 사용해 온 ‘연도’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지칭한다. 본디 천주교회에서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poor soul)’이라고 호칭하는데 그 까닭은 이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연옥에서 탈출할 수도 또 괴로움을 완화시킬 수도 없으나, 지상 여정에 있는 신자의 기도와 선업(善業)

3) Jung CG(1934) :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688.

4)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웅섭 역(2006) : 《신화·꿈·신비》, 숲, 서울, p274.

5) 자크 르 고프, 최애리 역(1995) : 《연옥의 탄생》, 문학과 지성사, 서울, p28.

에 의지하여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⁶⁾

연도는 또한 한국 천주교 신앙 안에 토착화된 한국인들만의 기도이다. 두레나 향약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민족성을 지녔으며 특히 한 가정에 죽음이 들이닥쳤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어 슬픔을 감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천주교가 한국에 전해진 후 신앙을 받아들이고 일생을 살고 난 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슬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며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었던 것이 바로 ‘연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도의례는 특히 지옥도 천국도 아닌 ‘중간상태’에 있는 연옥 영혼을 위한 사후 심판의 통과의례(通過儀禮)로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신자 자신의 신앙심을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산 자인 상주와 죽은 자인 망자(亡者)가 함께 통과의례의 구조인 분리(separation), 전이(transition), 통합(incorporation)의 단계를 거친다 하겠다. 즉 상례에서 망자는 이승에서 분리되어 전이단계를 거쳐 저승으로 통합되고, 산자는 상주로서 예사 사람들과 분리되어 전이기에 있다가 탈상을 통해서 상례를 마치게 되면 예사 사람들의 사회로 재통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분리의례에서 통합의례 사이의 전이기 동안에 산자와 죽은 자는 상주와 망혼으로서 같은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⁷⁾ 이렇게 본다면 상중에는 상주와 망혼이 특별한 연대를 이루면서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료

한국 천주교회의 연도는 《상장예식》⁸⁾의 규범에 따라 행해지는 천주교 상장례의 한 부분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장예식》은 1864년에 출간된 최초의 장례예식서인 《천주성교예규(天主聖敎禮規)》를 바탕으로 한국전통상

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1985) :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 pp822-823.

7) 임재해(1990) : 《전통 상례》, 대원사, 서울, pp13-14.

8)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3) : 앞의 책.

장례와 현재 한국의 장례문화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장례예식서이다.⁹⁾ 《상장예식》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임종과 운명, 제2장 위령기도, 제3장 염습과 입관, 제4장 장례, 제5장 우제, 제6장 면례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 위령기도를 '연도'라고 한다. 연도의례의 기도문 전체 내용은 너무 긴 관계로, 여기에서는 연도의례의 구조를 요약하고자 한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모든 이가 바로 무릎을 꿇고 '성인들이여, 천사들이여, 오셔서 이 교우(敎友)를 하느님께 바쳐주십시오.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애원의 기도를 올린다. 연도를 위한 준비는 영혼의 안식을 기리는 정화의 의미로 시작된다. 즉 연도를 바치기 전 먼저 시신을 향해 절을 한 뒤 성수(聖水)를 뿌리고 '망자(亡者)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아멘' 하고 기도한 후, 분향을 한 다음 연도를 바친다. 연도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1. 시작 성호(聖號),¹⁰⁾ 인사말, 독서, 시편¹¹⁾

1) 시작 성호 및 인사말

죽은 자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도록 간구한다.

2) 독 서

독서는 각각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 욕 19,1,23-27 :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 로마 6,8-9 :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 요한 5,24-28 :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9) 앞의 책, p10.

10) 천주교 신자가 기도나 제의(祭儀)에 참례 할 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목적으로 손으로 긋는 '+' 표.

11) 이후 연도의 기도문 내용의 성경 인용은 《상장예식》에 의거한다. 그 외의 인용은 교회법 제 825조에 따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한국 교회 공용으로 승인한 《성경》에 의거한다.

3) 시 편

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각각의 시편은 하느님과 성인들에게 올리는 청원기도다.

- 시편 62,2-8 : 생명의 샘이신 하느님을 목말라하는 영혼의 노래다.
- 시편 129 : 부활의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모든 이의 고통과 희망의 외침을 담은 기도다.
- 시편 50,3-21 :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 하느님만이 줄 수 있는 정화의 은총을 발견하게 된다.

2. 성인호칭기도(聖人呼稱祈禱, Litany of the saints)

성인호칭기도는 성모 마리아, 예언자, 천사, 순교자, 동정녀 등 여러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하느님 앞에서 신자들을 위해 빌어주기를 청하는 기도다. 이는 죽은 영혼이 혼자서가 아니라 영혼의 인도자들의 호위를 받아 마지막 길을 가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

3.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상주(喪主)가 다음 기도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바칠 수 있다.

- 일반 문상객의 기도 : 고인과 가족을 위한 기도문(연령회(煉靈會),¹³⁾ 레지오 마리아에(Legio Mariae)¹⁴⁾ 등).
- 자녀의 기도 : 불효에 대한 후회와 돌아가신 부모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는 기도문.
- 친구의 기도 :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功勞)에 고인을 맡기는 기도문.

4. 찬미기도

찬미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찬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

12) 한국교회사연구소(1985) : 《한국가톨릭대사전 4》,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 p2665.

13) 본당 신자들의 단체로서 주로 임종하는 사람들과 죽은 자들의 장례,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14) 평신도 단체로, 1921년 9월 7일 아일랜드의 더블린(Dublin)에서 20대의 젊은 여성 15명이 빈민원의 환자 방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인 데서 시작되었다. 레지오 마리아에(라틴어: Legio Mariae)는 '마리아의 군단'(The Legion of Mary)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성모 마리아의 지휘 밑에서, 선행과 봉사 등으로 현세에서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영적인 군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참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다. 또한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기도다.

5.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로서 산 자들의 기도도 함께 들어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청하는 기도다.

6. 마침기도

마침기도는 죽은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과 빛을 주고 산 자들이 주님 품에 다시 모일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주님 뜻에 맞갖은 삶을 살아가도록 청하는 기도다. 연도는 죽은 자와 산 자들을 위한 기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

모든 예식을 마치면 신신을 향해 성수를 뿌리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적절한 예를 표하고 빈소를 물러 나온다. 성수를 뿌리는 동안 신자들은 적절한 성가를 부른다.

연도의례에 나타나는 상징성 고찰

연도의례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상태에 있는 연옥영혼을 위한 위령기도로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중간상태에 대한 상징들이 드러남을 볼 수 있다. 이 상징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고, 영혼 깊은 곳에 스며있는 죽음과 그 이후의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변화시켜 주고, 우리 영혼의 밑바탕에 놓인 신뢰와 희망을 만나게 함을 알 수 있다. 즉 죽음으로 초래된 혼돈과 분열은 다시 정화되어 재생의 신비 과정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들의 심리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옥(煉獄, Purgatory, purgatorio, purgatorium)

연도는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로서 연옥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구체적으로 연도의례의 〈찬미와 간구〉에서 “세상을 떠난 ()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연옥’의 고통을 그치게 하소서.”라는 구절에

서 연옥 혹은 연옥의 고통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 중에 여러 종교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개념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천국과 지옥의 중간적 개념이 바로 ‘연옥’을 의미할 것이다. 연옥은 새로운 영역 즉 천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중간영역을 의미한다 하겠다.

반 개념의 통과례의 ‘분리-전이-통합’의 세 단계 중 연옥은 전이단계 즉 중간시기, 중간상태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는 산 자로부터 죽은 자가 되어 영적으로 통과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이단계적 의미의 연옥이란 속(俗)을 벗고 성(聖)을 이루기 위한 단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변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가톨릭교리서〉에 의하면, “연옥은 통회와 기도에 의한 죄의 정화를 의미하며, 하느님의 정의에 의해서 내려진 벌의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 정화와 속죄가 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연옥 영혼은 신이 내리는 고통을 즐겁게 수용함으로써 죄에 대한 유한한 벌의 보상을 하면 확실하게 정화되는 것이다.”¹⁵⁾ 여기에서 연옥 영혼들은 자신들이 벌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느님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한 고통에 대해 감사하며 순종과 인내로 참아낸다고 한다. 즉 연옥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직면하여 자신의 참모습과 하느님을 간과하며 살았음을 뉘우치는 고통을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연옥은 고통을 통한 정화의 개념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고통의 치료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하겠다. 용은 “정신치료의 고귀한 목표는 환자를 거의 불가능한 행복의 상태에 두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통을 참는 철학적 인내와 견고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삶의 충족과 전체성은 고통과 기쁨의 평형을 요구한다.”¹⁶⁾라고 말한다. 이는 대극을 수용하며 겪는 고통에 대한 보상은 재탄생, 대극의 화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개성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성을 위해서는 정신의 대극에 대한 동일한 평가와 고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본성에서 비롯된 대극을 참고 견뎌내는 것 외

1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2011) : 앞의 책, 1031항.

16) 이부영(1988) : 일조각, 서울, p249.

에는 해결책이 없다.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로서 대극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며 ‘화해시키는 제3의 것’이 생길 때까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양립할 수 없는 본질 곧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갈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분노를 자아내고, 모순을 일으키는 갈등을 참아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확고한 불변의 형태가 이루어진다.”¹⁷⁾라고 말한다. 또한 중국의 지혜서인 주역에 보면 “궁극에 이르면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이것이 하늘의 도(道)이다.”¹⁸⁾라고 말한다. 이는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 10,39)라는 그리스도의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자기(Self)를 위한 자아(ego)의 포기를 의미한다 하겠다. 폰 프란츠에 의하면, 우리는 불이 사그라져서 균형을 잡을 때까지 감정 속에서 타야하고, 불행히도 불이나 감정이 타는 것은 인간의 체계에서 책략을 써서 제거할 수 있는 비결이 없고 인내해야 할 뿐이다. 원 질료(prima materia)를 연금술의 그릇(container)에 넣고 열을 가해 불순한 요소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 태울 때, 그릇이 단단히 봉인되어 아무 것도 새어 나오지 못할 때, 즉 안전한 경계가 생길 때, ‘라피스(lapis)’ 혹은 ‘철학자의 돌(philosopher’s stone)’이 획득된다. 불은 내적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치수로 꺼지는데, 이 의미는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다.¹⁹⁾ 심리학적으로 이는 치료적인 그릇(therapeutic container)에서 그림자의 의식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방해받지 않는 연옥과 같은 중립적인 장소와 시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통 앞에서 참고 인내하는 순종과 수동성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용에 의하면, 입문의례는 본질적으로 순종(submission)의 의례로 시작되고 억압의 시기를 거쳐 이윽고 해방의 의례로 진행된다.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순되는 요소를 화해시켜 재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과 수동성은 입문의례를 성공으로 이끄는 기본적인 태도이다.²⁰⁾ 이는 자기에 대한 자아의 순종으로 볼 수 있다. 에딘저도 “수태고지(受胎告知, the Annunciation)²¹⁾에 대해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17) Jung CG(1973) : *Letters*, vol. 1,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375.

18) 노태준 역(1989) : 《신역 주역》, p85.

19) Von Franz ML(1980) : *Alchemy*, Inner City Books, Toronto, pp252-255.

20) 칼 구스타프 융 編, 이부영 외역(2008) :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p148.

21)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 예수를 ‘임신(수태)’ 한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 준다(고지)’는 뜻이다.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고 응답한다. 이는 신의 부르심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이며, 심리학적으로 신성과의 만남을 통한 수태를 영혼이 수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만남의 결과는 자기에 대한 자아의 순종으로서 자아는 자기를 섬기게 된다.”²²⁾라고 말한다. 이는 또한 자아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연옥의 고통은 형벌을 주는 하느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영혼을 정화해 부활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은총의 의미로 이해되고, 죽은 후에 죄를 씻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며, 연옥의 정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황금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금속 찌꺼기들을 불 속에서 녹여 버리는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 연옥 영혼들은 영혼의 완전한 정화를 이루게 되며 천국으로 가는 계단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옥은 ‘정화와 변환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연옥(purgatory, purgatorio, purgatorium)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purgare(‘죄를 씻는다’, ‘깨끗이 하다’), ‘purgatum(정화소)’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연옥은 분명 영혼들의 정화를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볼 수 있겠다.²⁴⁾ 종교적인 의식에서, 입문의식을 위한 준비로서 정화과정은 빈번하게 거론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며, 입문은 우리에게 자신의 극단적인 요소를 해소시킴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상태를 바꾸도록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연옥의 이미지와 개념이 최종적으로 꽃을 피운 건 14세기에 완성된 단테의 참회록인 《신곡》이라고 할 수 있다. 단테는《신곡》에서 연옥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나는 인간 영혼이 정화되고 천국에 오를 준비를 하는 이 두 번째 왕국을 노래하려 한다.”(연옥 1곡 4-6)라고 밝힌다. 여기서 천국에 오를 준비를 하는 정화과정이 연옥의 본질이자 존재 이유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곡》에서 연옥의 정죄산은 칠층산²⁵⁾으로 되어 묘사되어 있다. 단테가 천사가 지키고 있는 연옥 문 앞에 당도했을 때 천사는 칼끝으로 그의

22) 에드워드 F.에던저, 이재훈 역(2008) : 《그리스도인의 원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p26.

23) 한국교회사연구소 : 《한국가톨릭대사전 9》,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 p6155.

24) 우현주(2012) : 단테의 구원 개념의 재해석, 부산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p59.

25) 단테의 《신곡》 연옥편에 나오는 것으로 연옥을 벗어나기 위해 넘어야 할 험한 여정을 가리킴.

이마에 이태리어로 죄를 의미하는 ‘Peccato’의 첫 자인 P를 일곱 개 그어준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일곱 개의 P는 하나씩 지워지며 깨끗해지고, 그의 몸을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 또한 약해져서 그 산을 오를수록 단테의 몸은 가벼워진다. 연옥 산의 시작점은 너무 가파르고 험준해서 네 발로 기어오를 정도로 힘들지만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공간이 바뀔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오르기가 쉬워진다. 산의 속성이 역으로 적용되는 이 연옥의 정죄산은 노력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곳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연옥 산의 속성을 통해서 연옥이 ‘정화의 공간’이자 ‘과정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테가 연옥의 정죄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에게는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영혼은 모든 죄를 다 씻고 난 후에야 비로소 구원을 받고 낙원으로 오를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하겠다. 연옥의 정죄산이 칠층산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그 당시 신앙적으로 널리 퍼져있던 칠죄종(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음란)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지옥행의 일곱 가지 죄가 차례로 정화되어 마침내 낙원에 이르게 되어 있는 은총의 언덕인 것이다.

단테는 연옥에서 일곱 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정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 정화과정이 단테의 자아와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정한 질서와 단계를 따라 일어남을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정화과정이 영성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회개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죄 받아야 할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예비된 하느님 은총의 언덕에서 죄인으로서 내면의 자기와의 합일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 올라야 하는 성화(聖化)를 위한 7단계라고 할 수 있다.²⁶⁾

여기에서 숫자 7의 상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숫자 7은 입문식에서 바라고 열망하는 목표의 가장 높은 단계를 나타내며²⁷⁾ 일곱 계단 혹은 단계는 변환을 상징한다고 융은 말한다.²⁸⁾ 그리고 숫자 7은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입문식의 매개물이며, 입문식에 선행하는 정화작용의 주제로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입문은 인간의 극단적인 요소를 해소시킴에 의해서

26) 우현주(2012) : 앞의 논문, pp61-67.

27)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 : 융 기본저작집 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 서울, p83.

28) 앞의 책, p99.

의식상태를 바꾸도록 요구한다. 숫자 7의 상징이 나타나는 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교에는 일곱 개의 죄와 덕이 있다. 카발라에는 일곱 개의 가지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다.²⁹⁾ 일곱 색깔의 무지개, 에너지 변환의 통로로서의 일곱 개의 차크라는 동양의 시스템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차크라는 무지개 색 하나하나와 대응하여 각기 다른 비율로 진동한다. 명상가는 각각의 중심이 반응하고 열려 있도록 허락하여 에너지의 채널이 육체의 위로 또는 아래로 나선형을 그리도록 한다. 고대에는 에너지 체계로서의 자기(Self)에의 자각은 한 인간이 이승과 천상, 깨달음과 무지 사이의 무지개다리로 가는 길을 찾는 것으로 상징화 했다고 한다. 일곱 단계와 관련하여 피타고라스학파는 숫자 7을 ‘삶의 매개물’이라고 불렀다.³⁰⁾ 에딘저는 “영혼은 여덟 번째의 단계, 진실, 영원에 도달하기 위해 이 사다리의 일곱 단계를 올라간다. 이는 자기가 자신만의 조건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다.”³¹⁾라고 말한다.

불교에서 숫자 7은 석가와 관련된 신성한 수로 수도(修道)에 있어서의 일곱 가지 요건을 칠각(七覺)이라 하고, 중생 교화를 위해 일곱 가지로 변화하는 관음을 칠관음(七觀音)이라 한다. 또 일곱 가지 보물을 칠보(七寶), 깨달음의 지혜를 돕는 일곱 가지 행법(行法)을 칠보리(七普덕), 과거에 나타난 일곱 부처를 칠불(七佛), 세상에 일곱 번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 칠생(七生)이라 한다.³²⁾ 여기에서의 숫자 7은 신성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숫자 7이 강조되는 것은 민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백설공주>에서 난쟁이는 7명이다.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의 집을 청소하고 정리한 후에야 난쟁이들은 공주를 구하러 오고, 왕자는 그녀를 깨워 자기 아버지의 성으로 데리고 간다. 페르시아 민담 <무(無)의 성이라고 하는 욕실의 비밀(The Secret of the Bath called the Castle of Nothingness)>에서 하툼 옛 타이(Hâtim at-Tâi) 기사는 왕비 후슨 바누(Husn Bânû)를 위하여 수행해야 할 7번째 과제로서 ‘무(無)의 성이라고 하는 욕실의 비밀’을 탐험하는데 7일이 걸려서 거기

29) Pratibha SE, 정정순외 2인 공역(2006) : 《모래놀이치료와 수 상징》, 학지사, 서울, pp205-206.

30) 앞의 책, pp191-192.

31) Edward FE(1992) : *Ego and Archetype*, Shambhala, Boston&London, pp57-58.

32) 리영순(2006) : 《우리 문화의 상징체계》, 훈민, 서울, pp241-242.

도착하게 된다.³³⁾

7이라는 숫자는 우주의 탄생을 말하는 창조신화에서도 자주 보인다. 중국의 <혼돈신화>에서 세계의 출현이 혼돈신에게 눈, 귀, 코 등 7개의 구멍을 뚫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구약성경의 <창세기>에서 창조주는 하루에 하나씩 세상을 창조하고 하루를 쉬어 7일 동안에 우주 창조를 완성한다. 이에 따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기도 7일을 주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숫자 7은 시간 주기의 완성을 나타낸다. 완성의 측면에서 숫자 7은 역동적인 전체성을 상징한다. 작업 과정의 완성에 대한 기대에 신성한 힘을 공급해 준다. 구약성경의 홍수신화에서 노아는 땅을 뒤덮을 물의 범람(정화)을 위해 7일간 준비하고, 그의 비둘기가 물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되돌아오는 데에도 7일이 소요되었다. 숫자 7의 주기는 자연과 신비주의 속에서도 볼 수 있다. 토성이 7년을 주기로 네 번 순환을 할 때 달은 7일의 네 단계 안에서 차고 기운다. 전통적으로 7년째가 되는 해는 논과 밭을 쉬게 하고, 부채를 탕감해 주며,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때를 의미한다.³⁴⁾ 오리게네스(Origenes)는 의인들은 7일 동안 불을 통과한 후 제 8일에 낙원에 이른다고 말한다.³⁵⁾

이러한 의례와 민담과 신화는 공통적인 모티프의 구조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엘리야에게 의하면, 신들의 세계에 참여하거나 죽음 이후의 최고의 조건을 보장받거나 지고신의 도움을 얻어 하늘로 승천하여 절대적 상태의 회복을 표현할 때 우주는 겹쳐진 7개의 계단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일곱 하늘을 통과하여 우주 꼭대기와 극에 다다르면서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꼭대기는 우주의 북쪽, 북극성, '세계의 중심'이라는 상징과 동등한 형식적인 최고의 하늘에 의해서 형성된다. 최고의 하늘에 오르기 즉 세계를 초월하는 행위는 '중심' 가까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공간적으로 위를 향해 가면서 동시에 세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던 태초 순간으로 회귀하면서 세계를 초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늘 태초의 완전함을 회복하면서 재생하고 쇠신하려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은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의 최초 원천을 다시 받

33) Von Franz ML1990): *Individuation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London, p76.

34) Pratibha SE, 정정순외 2인 공역(2006) : 앞의 책, p184.

35) 자크 르 고프, 최애리 역(1995) : 앞의 책, p130,

견하고자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³⁶⁾

연도의례에서 또한 구체적으로 정화작용의 주제가 나타나는 부분은 회개하는 죄인들의 근심과 열망을 공홀이 여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의 시편 50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저의 죄를 없이 하소서. 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정화수의 채로써 제게 뿌려 주소서. 저는 곧 깨끗하여지리이다.”(시편 50,3-21)³⁷⁾ 이 시편은 죽은 자든 산 자든 죄를 정화하고 이웃과 하느님과 화해하여야 하며, 이 화해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은 죄의 용서를 얻고 하늘나라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이다.³⁸⁾ 연도는 정화의 행위인 성수(聖水)를 뿌림으로써 시작되는데, 이 시편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상징을 내면화한다 하겠다.

그린란드(Greenland)의 설화에도 정화작용의 주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죽은 사람이 하늘에 오르면 그들은 우선 스스로를 정화해야 한다. 그들은 커다란 모피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그것을 통과하느라고 힘들어 고생하는 가운데 몸은 모든 액즙을 잃고 동시에 모든 사악함도 잃는다.” 이 이야기에 죽은 자의 통과 의례와 같은 주제가 나타나는데, 이는 혼 길의 정화와 영혼의 정화 뿐 아니라 산 자의 정화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이부영은 해석한다.³⁹⁾

우리나라의 신화인 <바리데기>에서도 정화작용의 신화적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무당이 망자가 저승으로 갈 때 따라야 할 행동지침을 죽은 자에게 말한다. 남자 망자는 망건 벗고, 여자 망자는 오묘를 벗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길 선택을 말해주고, 그 길을 갈 때 거리신에게 짚신을 벗어 주고, 매장자씨에게는 길매, 속매 고를 풀어 전하고, 속적삼과 명정삼선, 천금지금, 이랑대단, 삼천곡깔 등을 주라고 한다. 고를 풀어준다는 것은 이승에서의 얽히고 설킨 삶의 곡절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이는 저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속의 삶, 세속성을 망자에게서 벗겨버려야 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

36)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웅섭 역(2006) : 앞의 책, pp137-142.

37)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3) : 앞의 책, p68.

38) 바르바로 피데리코, 김창수 역(1986) : 앞의 책, pp336-337.

39) 이부영(2012) : 앞의 책, p477.

다. 망건과 오묘, 속적삼 등의 의복과 소지품을 벗어서 저승에서 만난 신들에게 통과료로 바치는 것은 이들이 저승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속성과 물질성과 육체성을 벗어버리는 행위를 상징한다 하겠다.⁴⁰⁾

연옥의 고통은 모든 죄의 책임과 별도로 그 영혼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지속되며, 그 고통의 기간과 강도는 아직 남아 있는 죄과와 그에 대한 형벌의 총량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이는 융의 다음의 말과 일치한다 하겠다. “개성화 과정, 즉 도(道)를 이루겠다는 목적은 그저 이상일 따름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도를 이루기 위한 작업 그 자체이다. 평생 동안 도를 이루기 위해 작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동안 추구해야 할 목적이다.”⁴¹⁾ 정말 개성화는 의식적인 개인(conscious individual)이 되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융은 인생의 목적은 의식을 창조함으로써 자기(Self)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황 베네딕도 16세도 “정화는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지옥의 세계가 인간의 자아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묻혀지고, 가려지고, 억압된 죄악의 침전소를 상징한다면, 연옥의 세계는 의식이 가능하고 속죄를 위한 신앙의 공로와 기도가 효험 있게 적용되는 정화소를 상징한다 하겠다. 즉 영혼의 승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죄를 씻고 정화의 과정을 거쳐 가는 세계이다. 집단적 무의식의 심연과 죽음을 상징하는 지옥⁴²⁾의 구렁들을 통과해서 연옥의 정죄산(淨罪山)을 오르며 궁극적 자기를 향한 승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리학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내면의 그림자들을 하나씩 소화시켜 나갈 때 의식은 그만큼 넓어지며, 자기 자신의 통찰은 그만큼 깊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연옥의 상태는 사후세계 대극의 합일 즉 내적인 전체성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죽음을 통해 새로워지고 해방되어 전체가 되는 중간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연옥과 비슷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바르도(中陰, Bardo)⁴³⁾이다. 바르도(Bardo)는 티베트어로 ‘사이(Bar)’와 ‘둘(do)’ 즉 ‘둘 사이’

40) 김난주(2007) : 《융심리학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울, pp140-143.

41) Jung CG(1946) : C.W. 16, *The Psychology of the Trans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400.

42) Jung CG(1950) : C.W. 9ii, *A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72 ; 에드워드 F.에딘저, 이재훈 역(2008) : 앞의 책, p109, 재인용.

란 뜻으로,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상태, 과도기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에도 사후세계의 중간상태에서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 바르도 퇴돌(Bardo Thödol)의례이다. 《바르도 퇴돌》은 죽은 자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읽어주는 경전이다. 중간계 상태의 의식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진리를 듣고 이해하는 즉시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절대 자유의 경지(선계)에 도달한다고 한다. 즉 완전한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래서 스님들이 주검이나 영정 앞에서 이 경전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 살아있는 동안 들어온 이 가르침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죽은 자가 더 낮은 단계의 통로에 이끌리지 않고 존재의 밝고 투명한 빛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바르도 퇴돌》은 죽은 자가 중간계를 통과할 때마다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이 불교 형식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간상태에 머무는 기간은 대개 49일로 알려져 있다. 바르도는 일종의 꿈의 상태이며 다만 죽은 자가 이것을 꿈의 상태인 것을 모르고 실재하는 체험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도의 과정에서 죽은 자에게 의식을 잃지 않고, 보여지는 모든 빛, 색채, 소리, 환영들은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식시켜 영원한 해탈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⁴⁴⁾

《바르도 퇴돌》에 대해 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바르도 퇴돌의례는 출생 때문에 상실했던 영혼의 신성(神性)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입문의례과정이다. 그리스도교적으로 표현하면 세계나 죄악의 구속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러한 구원은 어둠이나 무의식성의 상태로부터 깨달음과 해탈과 극복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바르도의 삶은 결코 영구적인 보답이나 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을 궁극적인 목표에 가깝게 데리고 가는 새로운 삶으로의 하강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최후의 목표는 산 자의 인간적 현존의 노력과 열망에 의한 최종적이며 최상의 결과로서 산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탁월한 것이며 인간적이면서도 영웅적이다. 바르도 퇴돌의 입문의례과정은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점점 사라지다가 자궁 속으로의 재생으로 끝

43) 윤회하는 존재를 ‘유(有)’, 그 존재의 탄생을 ‘생유(生有)’, 죽음을 사유(死有)라고 한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직 환생을 하기 전의 상태, 아직 새로운 육체를 갖지 않은 중간상태를 ‘중유(中有)’ 또는 ‘중음(中陰)’이라 하며 티베트어로 바르도(Bardo)라고 한다.

44) 김성민(2005) : 불교의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서울, p33.

난다. 신의 세계나 정신세계는 오직 내 속에 있는 집단적 무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즉 무의식은 내 너머에 있는 신의 세계나 정신세계이며 거기에는 어떤 지적인 곡예도 필요하지 않고 전체성의 삶이 필요하다.”⁴⁵⁾

바르도 퇴돌의례와 연도의례는 다음과 같이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죽은 자의 영혼이 빛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바르도의 과정은 연옥 영혼의 정화과정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르도에 머무는 기간이 죽은 자에 따라 다르며, 죽은 자의 카르마(karma, 業報)의 결정에 따라 이 세상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연옥에서의 고통과 기간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죄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과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바르도 퇴돌 의례에서 죽은 자가 더 낮은 단계의 통로에 이끌리지 않고 존재의 밝고 투명한 빛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 들어온 이 가르침을 죽음 후에도 한 동안 끊임없이 상기시키는데, 이는 연도에서 죽은 자가 연옥 형벌에서 한시 바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며 산 자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적 스승이나 산 자의 노력과 열망을 강조하는 점도 두 의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바르도에 있는 영혼들이 불에 덴 것 같은 뜨거움과 목마름과 차가움을 느끼는 것은 연옥의 고통과 매우 닮았다 하겠다.

2. 심판(審判)

연옥의 존재는 죽은 자들의 심판이라는 관념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도의례에 나타나는 사후 심판의 모티프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시편 50,6), “선을 행한 이들은 영생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요한 5,29), “심판 날에 주님 ()를(을) 구원하소서.”(성인호칭기도)

사후 심판의 관념은 여러 종교에 널리 퍼져 있으나 심판의 양상들은 문명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연옥의 존재를 상징하는 심판이란 이중적 심판 즉 죽음의 순간에 첫 번째 심판을, 세상의 종말에 두 번째 심판을 맞게 된다는 신

45) 체.계. 용, 김성관(1995) : 《용 심리학과 동양종교》, 일조각, 서울, pp57-71.

양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심판의 중간에 다양한 요인들에 따른 형벌의 완화 내지 단축이라는 복잡한 심리(審理) 과정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은 고도화된 정의의 관념 및 형벌 체계의 투영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연옥은 또한 개인적 책임 및 자유의지라는 관념 즉 인간은 원죄로 인해 죄성을 타고 나지만 각 사람은 자기 책임 하에 지은 죄에 따라 심판 받는다는 생각과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⁶⁾

심판의 상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거에는 심판을 모든 행동을 낱낱이 셈하는 법적 재판으로 생각해 죽은 자들의 심판을 주관하는 대천사 미카엘은 때때로 칼과 저울을 든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저울은 영혼의 선한 행적과 악한 행적의 무게를 재는 정의의 저울이며, 칼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조금도 빛나감 없이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이미지는 심판을 의식하며 살게 했고, 일생동안 선한 행동을 많이 쌓는데 기여했지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오토마르 폭스(Ottmar Fuchs)에 의하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면 옛 세계와 새 세계 사이에는 순조로운 건너감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이 새로운 미래에 다시는 옛 것을 가져가지 않도록 곧 악행과 고통을 가져가지 않도록 심판을 거쳐 새 세계를 향하게 해야 한다. 심판은 옛 것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의와 화해로 귀착되지 않으면 새 것이 시작될 수 없을 만큼 옛 세계와 새 세계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이다.⁴⁷⁾ 또한 레오나르드 보프는 심판은 하느님 앞에서 참모습을 가렸던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이제껏 자신의 태도와 삶의 근본 구상을 정당화했던 모든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말한다.⁴⁸⁾ 이와 같이 심판의 상징의 본질적 의도는 불안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더욱 철저해야 하고, 삶에 책임을 져야 하며, 본질에 상응하는 삶을 살도록 초대함이라 하겠다.

고대 그리스인들로부터 신들이 내리는 심판과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교훈과 구원의 수단이며 정화의 과정을 이룬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는 일시적인 고통과 혼란을 통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자기원

46) 자크 르 고프, 최애리 역(1995) : 앞의 책, p29.

47) 안셀름 그린, 김선태 역(2008) : 앞의 책, p91.

48) 앞의 책, pp86-88.

형의 상징인 신은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보면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며 남자에게는 평생토록 일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삶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고통을 주는 심판이지만 사실 그것은 축복이나 다를 것이 없으며 그들이 현실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적응력의 의미한다 하겠다.⁴⁹⁾

심리학적으로 심판은 자기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심판은 고통을 야기하지만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중간영역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심판과 고통스러운 통과의례는 영혼의 정화를 통한 재생의 과정”이라고 이부영은 말한다.⁵⁰⁾ 심판은 개성화 과정에서 자아가 동화해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불

연옥은 장소로서 인식되기 이전에 우선 불로서 인식되었으며 연옥의 불은 여러 시대에 걸쳐 도처에서 일구어졌던 불들을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사후세계의 여러 시련들 중에서 특히 불에 의한 시련은 연옥의 역사에서 으뜸가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불은 인류의 원형적 상징에 속하는 것이며 창조와 파괴를 동시에 내포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낙원은 불로 둘러싸여 있고, 그 입구를 불타오르는 검을 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 무지한 자나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들의 길을 막는 수호자들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낙원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는 우선 낙원을 둘러싸고 있는 불을 통과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여기에서의 불의 의미는 금기,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불로써 죄를 정화한 후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불은 정화의 불로서 ‘정화에 의한 구원’ 즉 정화와 재생을 상징한다 하겠다.⁵²⁾ 그래서 진 쿠퍼는 낙원 회복에는 고난, 시련, 위험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행이 영적으로 지난(至難)한 길임을 상징하며,⁵³⁾

49) 박종수(2009) : 《융심리학과 성서적 상담》, 학지사, 서울, pp71-72.

50) 이부영(2012) : 앞의 책, p406.

51) 자크 르 고프, 최애리 역(1995) : 앞의 책, p49.

52) 앞의 책, pp35-40.

53) 진 쿠퍼, 이윤기 역(1994) : 앞의 책, pp262-263.

입문의례에서 신성한 불은 지나간 삶의 기간을 말소하고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불이라고 말한다.⁵⁴⁾ 이 불은 과도기적 중간상태에 걸맞는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세의 연옥 형성에 있어 중심적 위치(상태)를 차지한 정화의 불의 특징은 ‘통과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불의 통과는 연옥이라는 것이 일종의 심리(審理)과정으로서 상정된다 하겠다. 연옥 불의 시련은 형벌인 동시에 정화이자 신명 심판(神明 審判)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화의례로서 불 속을 뚫고 통과해 가야만 하는 것이다.

탄트라 철학에서 불은 창조자라고 한다. 용은 열정의 불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행복하여 고통이나 정서가 완전한 지배력을 가지도록 허용할 때 정화된다고 말한다.⁵⁵⁾ 이는 불의 과정동안 수동적인 태도와 무의식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뜨거운 불의 시련을 통하여 하찮은 금속은 제련되어 파괴할 수 없는 핵, 영원성의 상징인 금으로 변환된다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죽은 자의 육체를 화장함으로써 깨끗이 태워 파괴해 없애고 순수한 영혼만이 신들의 세계로 올라가 불멸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⁵⁶⁾ 에던저도 불의 작용은 죽은 후의 자기(Self)와의 합일(coniunctio)과 관계가 있는데 이는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즉 불이 검은 찌꺼기, 삶의 여러 가지 욕심을 소멸하게 하여 영혼의 정화를 일으켜 만드는 순수한 물질인 하얀 재는 고난체험으로부터 살아남은 순수하고 영광스러워진 몸인 예수로 대변된다고 말한다.⁵⁷⁾ 그래서 불은 소멸되고 정화되어 영원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의 작용은 연금술의 연소(calcinatio)과정에 해당한다 하겠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고 한다.⁵⁸⁾ 또한 불은 연금술에서 인간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는 연금술 과정의 각 단계에 열정을 쏟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⁵⁹⁾

54) 앞의 책, p33.

55) Jung CG(1930-1934) : 앞의 책, p144.

56) 장영란(2008) : 《철학과 현상학 연구》, 38, 한국현상학회, 서울, p135.

57) Edward FE(1985) : *Anatomy of the Psyche*, Open Court, pp30-32.

58) 엘리스 쿠퍼트, 박진희 역(1995) : 《연금술 이야기》, 민음사, 서울, p52.

59) Von Franz ML(1995) : 앞의 책, p191.

용되는 불은 신성하고 변환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불은 파고들며 무엇보다도 수직적으로 자신을 태우고 상승하기 때문에 만물을 비추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화산의 위력과 같이 파괴적이기도 하다. 동양의 불교에서 불은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의 무명(無明)을 밝혀 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탐내고 증오하는 어두운 마음을 밝혀 정화되길 바라는 신심을 담은 연등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을 감싸고 있는 불꽃의 바퀴가 우주의 창조와 그 순환을 의미한다.⁶⁴⁾ 종교적 의미에서 불은 세상의 무용한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파괴하여 원초적인 순수성을 회복해 새로운 세상 혹은 낙원을 만들어 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이 고대인들에서부터 탐구되기 시작했던 불은 창조와 파괴에서 나아가 재창조에의 의지를 갖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도에는 ‘신적인 재생의 불과 물’의 이원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를 시작할 때 주례자는 십자 성호를 긋고 “...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므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가집니다...”라고 기도한다. 여기에서 연도에서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재생적 사건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어떤 측면의 죽음 또는 생명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경험은 불같이 타는 뜨거움과 재탄생의 차가움을 서서히 느끼게 된다고 한다. 칼-마틴 에즈먼과 발레리우스 막시무스에 의하면, 연옥의 죽은 자들이 처해지는 기본적인 시련은 단순히 불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불을 차례로 통과하는 일종의 ‘스코틀랜드의 냉온탕’ 시험 같은 것이며, 코카서스의 고행자들은 단련을 위해 불 속과 차디찬 얼음 속을 번갈아 오가며 산다고 말한다.⁶⁵⁾

불과 물의 이중적 상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요한 묵시록에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15,2)라고 되어 있다. 불과 물이 함께 있으면 우주의 2대 원리로서의 능동원리와 수동원리, 천공(대부)과 대지(태모)의 대립을 뜻한다. 바슐라르는 이에 대해 “불과 물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있지만 열과 습기로서는 생명체에 필수적이다. 중세 이전의 문헌들에서

64) 진 쿠퍼, 이윤기역(2000) : 앞의 책, p135.

65) 자크 르 고프, 최애리 역(1995) : 앞의 책, pp36-37.

불과 물의 이원적 이미지는 뜨거운 곳과 습한 곳, 더운 곳과 추운 곳, 불타는 요소와 얼어붙는 요소의 병치라는 형태로 나타난다.”⁶⁶⁾라고 말한다.

불과 물의 이원적 이미지는 그리스도교 초기에 나타나는 불세례 의례 속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의례가 나타나는 것은 마태오복음과 루카복음의 세례자 요한에 관한 대목에서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마태 3,11 ; 루카 3,16) 이 성경 구절에 대해 오리게네스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요한이 요르단 강에서 세례 받으러 오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용납하고 어떤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운운하며 쫓아버렸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의 강에 불의 창을 들고 서서 죽은 뒤 낙원에 가게 될 그러나 정화를 받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이 강에서 세례를 주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주신다. 그러나 첫 번째 물세례의 표지가 없는 자들에게는 불세례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불의 강에 이르러 물과 성령에 의한 세례의 표지를 내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⁶⁷⁾ 암브로시오(Ambrosius, 339-397)는, 불세례는 불의 통과이며, 낙원 입구를 지키는 케루빔 천사의 불 칼(창세 3,24)이고, 모든 이가 불로써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리게네스와 마찬가지로 낙원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은 불에 의해 시험을 겪어야 하고 예수와 사도들과 성인들조차도 불을 거쳐서 낙원에 들어갔다고 말한다.⁶⁸⁾ 불세례 또한 찌꺼기를 태워버림으로써 원초적인 순수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불을 통한 낙원의 회복과 연관된다 하겠다.

부활 전 성 토요일에 행하는 세례수 축성예식에서도 불과 물의 이중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제는 부활초를 물에 넣고 십자가 모양으로 세 번 축성한다. 그때 성령의 빛과 재탄생의 성질이 세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재탄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부활초의 불을 물에 넣는 행위는 초의 빛이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무의식을 수태시키는 심리적인 행위

66) 바슐라르, 민희식 역(1977) : 《불의 정신분석》, 삼성출판사, 서울, p18.

67)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응섭 역(2006) : 앞의 책, p126.

68) 앞의 책, p136.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발적 희생의 태도이며, 불을 기원인 물 안에 잠기게 함으로써 힘과 효과가 증대됨을 의미하고, 진리에 대한 의식적 이해와 마음의 각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과 물의 대극의 합일로서 불타는 물이 된다. 그래서 세례수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타는 물(aqua ignita, fire water)’이며, 의식과 무의식의 합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⁶⁹⁾ 입문의례에서 불과 물은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재생적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4. 사 막

시편 62에서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자아’가 직면한 혼란, 정화와 변환의 장소라는 의미에서 사막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림나이다.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러러 보옵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낮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시편 62,2-4)⁷⁰⁾ 생명의 샘이신 주님을 목말라 하고, 하늘의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는 영혼의 갈망을 노래한 이 시편은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기도이다.⁷¹⁾

사막은 자아가 현재의 정신 상태나 생활방식을 떠나 일종의 중간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 중간세계는 변환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⁷²⁾ 그리스도교 안에서 사막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매우 중요한 장소로서 의미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막은 황량하며, 시험하고 고문하는 악령이 존재하는 혼돈과 두려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심판과 징벌의 장소로 여겨진다. 하느님에 의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위해 사막에서 40년간 체류하면서 정화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집트에서 형성된 잘못된 삶의 형태와 습관을 정화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산에서 캐낸 원광을 용광로에 넣어 제련한 뒤 쇠를 만들어 사용하듯이 이스라엘 백

69) Von Franz ML(1980) : 앞의 책, p36.

70)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3) : 앞의 책, pp60-62.

71) 바르바로 피데리코, 김찬수 역(1986) : 《구약성서주해집》, 크리스찬출판사, 서울, pp382-384.

72) 에릭 애크로이드, 김병준 역(1997) : 《꿈 상징 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p122.

성을 사막이라는 용광로에 넣어 고된 훈련을 시킨 것으로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징벌과 구원을 동시에 경험한 곳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와 같이 사막은 정화와 훈련의 장소로 지상의 모든 부와 인간적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과 삶을 통합하여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한 장소였다. 교부들은 사막으로 물러나 금욕수련을 통해 정화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막에서 정화와 존재의 변환을 경험한 교부들은 온전한 자신의 통합을 이루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수용하고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막은 불타는 가뭄 혹은 영혼 구원을 위해 육체를 소모하는 금욕적인 신성을 상징하며, 하느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막은 태양의 영역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 태양은 하나의 거대한 불덩이로서 에너지의 원천,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는 사막이 현실과 결합된 순수하고 축복받은 빛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사막은 또한 세례자 요한의 활동 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한 1,23)가 되어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마르 1,4). 이는 연옥에 갇힌 죽은 영혼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승에서 산 자들이 연도를 올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막은 회개를 통해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곳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장소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막이 정화의 장소이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전환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회개란 희랍어 ‘메타노이아(metanoia)’로 ‘방향전환’의 의미를 지닌다. 즉 하느님에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한다 하겠다. 심리학적으로는 자아중심적 삶에서 자기중심적 삶으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융의 분석심리학에 회개라는 개념은 없지만 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자 및 아니마/아니무스를 통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하겠다. 정반대의 방향 즉 외부대신 내면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고, 새로운 능력이 작용하여 삶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⁷³⁾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통합 없이는 자기라는 중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73) 에릭 에크로이드, 김병준 역(1997) : 앞의 책, p73.

이와 같이 사막은 인간 문명이 발전된 세상과 단절되고 구별되는 곳으로 적막과 고통을 통한 정화의 공간으로서 변환이 이루어지는 에덴의 낙원의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5. 도가니

또한 시편 129에 연옥과 연도와 관련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 들으소서.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주님께서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시편 129).⁷⁴⁾

이 시편은 깊은 탄식의 기도로 절망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기도를 경청해 달라는 내용이며,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상태에 머물면서 부활의 동이 트기를 곳곳하게 기다리는 모든 이들의 고통과 희망의 외침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⁵⁾ 연옥을 타는 불구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깊은 구렁 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가니’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한국 무속의 사령제의 절정을 이루는 의례의 주요 부분인 죽은 자의 넋이 소원하는 궁극적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징적인 행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도의례에서는 구원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사령제에서는 무조신(巫組神, 무당 본인의 조상신)의 신통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죽은 넋이 생전의 행업을 엄중하게 심판받을 때 반드시 적대세력이 중국적인 비참한 처지로 끌고 가려고 술책을 부린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사령제에서는 이 모티프가 명부십대왕(冥府十大王)의 세 사자(使者)가 내려와 가장 무섭고 비참한 죽음과 심판의 장소로 죽은 넋을 끌고 가려하며, 이때 가족들은 죽은 자에 대한 정성의 표로 격한 몸짓을 하면서 그 넋을 지키는 시늉을 해 보인다고 한다.⁷⁶⁾ 한국 민담에서도 천상의 왕과 인간의 관계에서, 구원의 손길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죽음

74)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3) : 앞의 책, pp64-67.

75) 박영식(1999) : 《분향갈게 하옵소서. 성무일도 제1주간 시편과 찬가 해설》, 가톨릭출판사, 서울, pp236-237.

76) 최길성(1987) : 《무속의 세계》, 정음사, 서울, pp106-107.

의 나라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부영은 말한다.⁷⁷⁾ 연도의례에서는 이 시편을 기도할 때 이러한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도가니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재생하기 전의 모든 것이 되돌아와서 죽는 자궁, 유향과 수은, 남성과 여성, 휘발성과 불휘발성처럼 대립하는 힘을 용해와 응고로 합치시키는 결합이 일어나는 용기(容器, vessel), 원 질료(prima materia)가 용해되어 정화되고 변환되는 아궁이나 아타노르(athanor, 스스로 타는 화로)로서 태모신, 어둠, 혼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⁷⁸⁾ 불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어둠과 혼돈을 뜻하는 도가니라는 용기에 불기운을 관통시킨다는 것은 빛과 어둠의 대극합일의 창조행위를 상징한다 하겠다.⁷⁹⁾ 여기에서 죽음은 재출발, 재탄생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을 볼 수 있다. crucible(도가니)이라는 말이 라틴어의 십자가, 시련의 의미를 지닌 crux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때, 도가니는 변환을 위한 고통과 시련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6. 성인호칭기도(聖人呼稱祈禱, Litany of the saints)⁸⁰⁾

‘성인호칭기도’는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여 죽은 자에게 영원한 안식과 빛과 생명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이다. 천주교에서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야기하며 성인들을 공경한다. 이런 성인들을 묵상함으로써 하느님이 인간의 상처도 치유한다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을 하느님 곁에 있는 전구자(轉求者)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의 무덤에서 미사를 거행하는 것은 자신보다 앞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 영혼들이 여전히 제대 돌레에 모여 있으며, 죽은 자들이 하느님의 옥좌에서 자신을 대변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미사를 봉헌하는 사람들은 성인에게 의탁하면서 그 성인의 전구로 하느님이 도움을 베풀 것을 믿으며 기도한다.

이처럼 성인들의 통공의 통교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은총의 선물이

77) 이부영(2012) : 앞의 책, p395.

78) 진 쿠퍼, 이윤기 역(1994) :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pp94-95.

79)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 : 용 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솔, 서울, pp50-62.

80)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3) : 앞의 책, pp76-91.

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연도는 세상 여정에 있는 지상교회와 영원한 행복의 천상교회의 통교의 기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연도의례에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죽음의 관계가 천사들과 성인들의 통공으로 이루어지는 통교로 맺어지고 있는데, 이는 연도를 드리는 것은 산 자들의 기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들과 천사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지상교회는 성인호칭 기도으로써 성인들의 전구와 천사들의 도움과 함께 이미 성인들이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를 전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죽은 자들이 연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상낙원에 들어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¹⁾

심리학적으로 성인의 통공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교류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나타낸다 하겠다. 죽은 자가 천상낙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산 자의 많은 희생과 선행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영혼의 정화를 통한 재탄생의 과정 즉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에 있어 의식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낙원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소망과 끈질긴 노력이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죽은 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인간도 하느님에게 영향을 미치며, 창조적인 변환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성인호칭기도는 사령제에서 여러 신령들이 죽은 넋을 응위하여 저승까지 데려다 준다는 의식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죽은 영혼(靈魂)이 혼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존재들의 호위를 받아 마지막 길을 가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의례에서는 권능 있는 천사들과 신앙의 조상들인 성인(聖人)들이 영혼을 호위하는 혼령(魂靈)의 인도자로 언급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성인호칭기도의 신령한 존재들, 성인들, 천사들은 개성화된 존재들을 의미하며, 영혼의 인도자(psychopompos)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초자연적인 힘의 보우(保佑)를 구하는 일로서 개성화된 사람은 자연히 자기 자신과 함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성인호칭기도에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모든 천사와 대천사들을 부르며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를 바친다.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 이

8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2011) : 앞의 책, pp946-958.

야기에서 라자로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루카 16,22)고 한다. 여기에 죽음의 문턱으로 데려가는 천사의 이미지가 있으며, 천사들은 가난한 라자로를 맞아들였던 것처럼, 죽은 자를 낙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부들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수호천사(守護天使, a guardian angel)를 배정받는데 이 천사는 일생 동안 인간과 동행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 하느님에게 데려가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 앞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심리학적으로 천사는 신성의 명령을 받아 인간의 삶과 죽음의 여정을 수행하는 천상의 힘이며, 연결하는 존재로서 분리된 것을 통합시켜 재창조, 전체성, 치유를 체험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⁸²⁾

또한 성인호칭기도에서 “성모 마리아님,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찬미와 간구(懇求)⁸³⁾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전구(轉求)를 청하며 연옥 영혼이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바친다.

이는 죽음은 어머니와 관련되고, 태어날 때 어머니 품에서 나온 것처럼 죽을 때도 어머니 같은 하느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된다 하겠다. 천주교에서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⁸⁴⁾ 미사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행한다. 사제가 축성한 재를 신자들의 머리 위에 십자모양으로 바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창세 3,19), 혹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마르 1,15) 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는 장엄한 외침인 것이다. 여기에서 죽음을 대지모(Earth Mother, Mother Nature), 영원한 어머니의 품으로의 회귀로 여김을 알 수 있다. 이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를 껴안은 성모 마리아를 나타내는 ‘피에타(Pieta)’ 상을 볼 수 있다. ‘피에타’라는 말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이미지는 죽음을 위로하는 상으로, 성모 마리아가 죽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에 껴안은 것

82) 베레나 카스트, 윌석영 역(2007) : 《꿈》, 프로네시스, 서울, p158.

83)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3) : 앞의 책, pp95-105.

84) 라틴어 : Feria IV Cinerum, 영어 : Ash Wednesday,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로 사순 제 1주일 전(前) 수요일을 말한다. 교황 성 그레고리오 1세(590~604)에 의해 사순절의 첫날로 성립되었음.

처럼, 어머니 같은 하느님의 팔도 죽은 영혼을 자비롭게 품어주기를 바라는 갈망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이미지를 묵상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죽음이 마치 새로운 탄생 같음을 깨닫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천주교 신자들은 ‘묵주기도(默珠祈禱, the Rosary)⁸⁵⁾를 바칠 때 피에타 상을 떠올리며 성모송과 구원송(救援頌)을 바친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성모송),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구원송) 이 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불안을 이겨내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 안에서 마리아를 임종자의 동반자로 생각하여 성모송과 구원송을 바칠 때마다 임종 때 어머니 같은 하느님의 품에 안기어 죽으리라고 믿는 것이다. 피에타 상은 무의식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신뢰와 확신으로 바꾸어 준다고 할 수 있다.

연도의례의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지옥하강 모티프⁸⁶⁾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로마 6,9)

그리스도의 지옥하강과 관련하여, 요세프 라칭거는 지상에서 고통 받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면 천국은 죽은 자들에게 궁극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며 보살에 대한 불교의 이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보살은 인간이 지옥에 있는 한 열반(涅槃)에 들어가기로 거부한다. 보살은 이런 기다림으로 지옥을 없앤다. 지옥이 비어 있을 경우에만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깊은 이상을 주는 이 보살의 이미지는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시아의 꿈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간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 여기에서 라칭거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은 고통을 겪는 마지막 사람에게 다다를 때 나타나며, 천국을 누릴 죽은 자들은 고통을 겪는 역사를 향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⁸⁷⁾

외경에 보면, 성 금요일과 부활절 일요일에 그리스도는 지옥으로 내려가 고대의 가치있는 의인들을 건져내는 것으로 묘사된다. “황동으로 된 문이 산산

85) 실에 펜 목주알을 만지면서 기도문을 암송하는 묵상기도.

86) 다른 그리스도의 지옥하강 일화가 나타나는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다 : 마태 12,40 ; 사도 2,31 ; 로마 10,6-7 ; 목시 1,18 ; 에페 4,8-9.

87) 안셀름 그린, 김선태 역(2009) : 앞의 책, pp127-128.

조각나고 죽은 자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느슨해졌으며 영광의 왕이 들어왔다. 사탄을 쇠사슬로 묶은 다음 구세주는 아담의 이마에 성호를 그으며 축복했고, 모든 애국자들, 예언자들, 순교자들, 선조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지옥에서 뛰쳐나왔다.”⁸⁸⁾ 이 상징적 이미지는 고전적인 신화에 등장하는 오디세이, 오르페우스, 헤라클레스 등과 유사한 것으로 신이나 영웅이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을 건져내어 이 세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옥하강에 대한 생각은 아마도 그러한 신화에서 자라난 것일 것이다. 이 모티프는 인간에게 있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 죽음으로 접근하기 위한 열망과 그 세계를 극복하고 뛰어 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하겠다. 단테의《신곡》의 연옥(4장)에 보면, 연옥에는 덕을 쌓은 이교도들, 시인, 철학자, 고대의 영웅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 숙고한 초기 교부들은 그리스도가 내려간 정확한 장소는 지옥이 아니라 지옥의 경계나 중간지대 즉 지옥과 천국 사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지옥정벌이 지옥이라는 공간에 대한 정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어둠과 악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대한 정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⁸⁹⁾

이는 사람의 운명은 죽은 뒤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천지창조의 원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죽음의 의미를 변화시킨 것인데, 이에 상응하여 용은,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형상은 타락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손상되고 부패한 즉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 통합의 범위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에서 암시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 작업은 죽은 자의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개성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인 집단적 무의식을 통합하는 작업과 동등한 것이다.”⁹⁰⁾라고 말한다. 또한 용은, 인간이 ‘영원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집단적 무의식의 초시간적인 특성 때문이며, 정신

88) Alice KT, 이찬수 역(1998) : 《지옥의 역사》, 동연, 서울, pp131-137.

89) 자크 르 고프, 최애리 역(1995) : 앞의 책, pp107-108.

90) Jung CG(1950) : 앞의 책, par.72 ; 에드워드 F.에던저, 이재훈 역(2008) : 앞의 책, p109, 재인용.

인 면에서 완벽한 재생이라고 풀이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재활성화 때문이라고 말한다.⁹¹⁾ 이는 자아가 의도적으로 무의식 특히 집단적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럴 때 “자아의 빛은 상층 세계에 일시적으로 소멸되고 하층 세계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구제할 가치가 있는 무의식적 내용들을 구출하고 심지어 죽음 자체를 정복한다. 이는 무의식이 자아를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자아를 무한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럴 때 자아는 상대화되어 초월적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더 큰 존재에 종속시킨다.”⁹²⁾라고 에딘저는 말한다.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동안은 사라진 가치가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죽은 영혼은 지옥에서 어둠의 세력을 정복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가장 명료한 의식 획득과 자아가 자기 원형으로 변환되는 개성화를 의미한다 하겠다.⁹³⁾ 또한 용은 입문식에는 항상 더 큰 전체성을 위한 무의식으로의 하강이 있다고 말한다.⁹⁴⁾ 같은 맥락에서 에딘저는 영웅적인 자아는 무의식과 직면하고 새로워지며, 그리스도가 지옥으로 내려감으로써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고대의 영웅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개성화 과정은 우리 자신들은 물론 우리 조상들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즉 한 사람의 개성화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⁹⁵⁾

7. 낙원회복

천주교의 장례식에서는 “천사들이여, 이 교우를 천상낙원으로 데려가시고, 순교자들이여, 이 교우를 맞아들여 거룩한 도시 천상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시오.”⁹⁶⁾라고 노래한다.

여기에서 죽음을 천상낙원, 천상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이해하며, 죽음의

91)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웅섭 역(2006) : 앞의 책, p147.

92) 에드워드 F.에딘저, 이재훈 역(2008) : 앞의 책, p114.

93) Jung CG(1969)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149.

94) Jung CG(1935) : C.W. 18, The Symbolic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ar.270.

95) 로렌스 W.자피, 심상영 역(2006) : 앞의 책, pp120-121.

96) 장례예식서, 50항.

공포를 몰아내며 위안을 주는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에서 낙원은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살던 인간의 원초적이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최종 상태를 말한다. 천상낙원, 천상예루살렘, 천국과 같은 저승은 심리학적으로 의식 너머의 세계 곧 무의식, 마음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테메노스(temenos, 聖域), 자기원형 상, 자기실현의 원동력이자 목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⁹⁷⁾

엘리아데에 의하면, 낙원에 대한 향수는 모든 종교에서 입증되는데, 고대 사회의 신비경험인 샤머니즘은 낙원에 대한 향수, 타락 이전의 자유와 지복 상태를 회복하려는 욕망, 땅과 하늘 사이의 의사소통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한다. 그리고 샤머니즘의 모든 의례는 황홀경을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더 심화된 종교 형식에서는 신비주의가 이 황홀경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교도 낙원에 대한 향수에 의해 지배되며, 동쪽을 향한 기도는 낙원이라는 주제와 결부되어 있고, 동쪽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것은 낙원에 대한 향수의 표현이라고 한다. 샤먼들의 불의 통제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낙원을 둘러싼 불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은 인간 조건을 폐지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이 조건을 폐지한다는 것은 태초의 인간상황 즉 낙원으로 복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불에 의해 정화된 영혼뿐이다. 따라서 가장 원시적인 신비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탄의 지배 아래 떨어져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물리치는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되어 낙원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교는 낙원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⁹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가장 중대한 결과는 바로 하느님으로부터의 분리로 인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고통은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관계단절의 표지이며, 피조물인 존재가 자기의 근원인 창조주 하느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 회귀하게 하는 은혜로운 창조주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은, 하느님 편에서 보면 인간을 부르는 하느님의 강권개입이며, 인간 편에서 보면 고통을 통한 정화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속의 낙원

97) 이부영(2012): 앞의 책, p401.

98)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웅섭 역(2006) : 앞의 책, pp80-87.

을 회복하게 하는 것, 하느님과의 합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심리학적으로 고통이나 신경증은 의식과 무의식, 자아(ego)와 자기(Self)의 분열, 자기(Self) 소외의 결과이며 의식의 일방성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나 신경증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인격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자기와의 일치, 자기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⁹⁹⁾

융은 의식이 출현하면서 의식은 대극 중 어느 한쪽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일방성을 지니게 되어 인격에 속하는 많은 부분을 억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의 출현은 전체로서 존재하는 정신에 긴장과 갈등과 고통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아 중심성은 의식의 필수적인 속성인 동시에 의식의 구체적인 죄라고 말한다.¹⁰⁰⁾ 이에 따라 인간은 긴장과 갈등이 수반되는 의식의 탄생 이전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곳은 영원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낙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인간과 자연과 신이 원래적인 일체성을 가졌던 상태, 의식 탄생 이전의 전체성의 상태 즉 자궁으로의 복귀를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식의 측면에서 보면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음이 인간의 본래적인 전체성의 회복, 자기완성과 실현에 있어 불가결한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즉 죽음이 인간 삶의 본질적 요소임을,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나타낸다 하겠다. 죽음이란 의식의 무의식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낙원회복에 대한 소망은 전체성 회복을 향한 인간의 갈망의 표현이라 하겠다.

리코르(Paul Ricoeur)는 신화와 의례를 전체성 회복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본다.

성스러운 것과 관계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 전체와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혹은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나누임 없이 충만함을 이루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는 목표일 뿐 현실은 아니다. 신화가 구성하는 전체성에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의례와 신화를 통해 그 전체성을 흉내 내고 재현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미 처음부터 분열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화와 의례는 전체성을 위한 의도적인 재구성이요, 회복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신화와 의례는 상징이다. 통

99) 이부영(1998) : 앞의 책, pp207-208.

100) Jung CG(1968) : 앞의 책, p364.

일과 일치와 화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하고 몸짓으로 표현해야 한다.¹⁰¹⁾

리콰르는 신화와 의례가 의도하는 전체성과 실제 경험 사이에는 처음부터 거리가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점은 실낙원이 아니라 먼 옛날에는 낙원에서 일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낙원은 인간의 내면에서 꿈꾸고 희망하는 세상으로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하는 세상인 것이다. 따라서 낙원회복의 신화와 의례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단절된 현실을 인간이 인식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와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즉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맺는 말

연도의례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숙고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하느님의 은총과 이미 낙원에 들어가 있는 성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실현에 있어 의식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무의식의 인식과 통합은 의식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은총에 힘을 입은 연옥 영혼은 자기(Self)에로 향한 구체적인 정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낙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즉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무의식의 심연을 자신의 절대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게 된다. “자기-인식의 길에 도달한 내적 인간”,¹⁰²⁾ 즉 변환된 인격이 되어 초인적 힘을 지니게 되며 하느님의 세계와 통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느님과 합일의 경지에 이르러 모든 열망과 의지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일체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개성화의 정점이요 자기실현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도는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이므로 기도의 효과를 갖는다 하겠다. 하나의 심리적 절차로서의 기도가 무의식의 저편에 도달하려는 ‘적극적 명상(active imagination)’에 상응한다면, 적극적 명상과정에 의해 대극을 화해시키고 변환시키는 효과를 통해 내적인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101) Paul R, 양명수 역(1995) : 《악의 상징》, 문학과 지성사, 서울, pp164-165.

102) Jung CG(1950) : 앞의 책, p318.

자아와 자기의 축(ego-Self axis)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지옥과 천국, 하늘과 땅, 형벌과 용서, 마귀와 천사, 절망과 소망, 내면과 초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구분을 없애고 일치되어 온전히 통합된 전체적인 인격체로 새로 나게 한다 하겠다. 즉 의식적 자아가 내면의 핵인 자기와의 재통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연도는 또한 죽은 자와 산 자들을 위한 기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 '주님의 기도'에서 산 자들의 기도도 함께 들어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청하고, '마침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와 성인들의 통공을 통하여 죽은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과 빛을 주시고, 산 자들이 주님 품에 다시 모일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주님 뜻에 맞갖은 삶을 살아가도록 청하며 기도를 마친다. 따라서 입문의례로서의 연도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개성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전의 천주교 신자들은 이 연도를 매일 저녁기도 때마다 봉헌한 것으로 알려진다. 단순히 연옥 영혼들을 위한 대리기도나 전대사(全大赦)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성찰하고 참회하는 기도의 하나로 연도를 봉헌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매일의 삶 안에서 죽음과 삶의 바른 뜻을 묵상하고 부활신앙을 인식하고 전달해온 것이다. 임종 때 우리 자신이 신앙에 대한 도전과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아무도 기도해 줄 수 없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연도를 봉헌하며 통회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연도는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결국 연도하는 사람 자신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연도를 장례기간이나 기일에만 바칠 것이 아니라 옛 신자들처럼 일상기도로 봉헌하며, 매일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자신의 삶과 죽음을 묵상할 수 있다. 우리가 죽음을 배우면 삶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도의 올바른 의미와 기도방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난주(2007) : 《용심리학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울, pp140-143.
 김성민(2005) : 불교의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서울.

- 노태준 역(1989) : 《신역 주역》
- 리영순(2006) : 《우리 문화의 상징체계》, 훈민, 서울.
-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응섭 역(2006) : 《신화·꿈·신비》, 숲, 서울.
- 바르바로 피데리코, 김창수 역(1986) : 《구약성서주해집》, 크리스찬출판사, 서울.
- 바슐라르, 민희식 역(1977) : 《불의 정신분석》, 삼성출판사, 서울.
- 베레나 카스트, 원석영 역(2007) : 《꿈》, 프로네시스, 서울.
- 박영식(1999) : 《분향갈게 하옵소서. 성무일도 제1주간 시편과 찬가 해설》, 가톨릭출판사, 서울.
- 박종수(2009) : 《융심리학과 성서적 상담》, 학지사, 서울.
- 아니엘라 아퀘 염유, 이부영 역(2000) : 《C.G.Jung의 회상, 꿈 그리고 思想》, 집문당, 서울.
- 에드워드 F. 에딩저, 이재훈 역(2008) : 《그리스도인의 원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 에릭 애크로이드, 김병준 역(1997) : 《꿈 상징 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 엘리스 쿠더트, 박진희 역(1995) : 《연금술 이야기》, 민음사, 서울.
- 우현주(2012) : 단테의 구원 개념의 재해석, 부산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부산.
-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 이부영(2006)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 이부영(2012)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서울.
- 임재해(1990) : 《전통 상례》, 대원사, 서울.
- 자크 르 고프, 최애리 역(1995) : 《연옥의 탄생》, 문학과 지성사, 서울.
- 장영란(2008) : 《철학과 현상학 연구》, 38, 한국현상학회, 서울.
- 진 쿠퍼, 이윤기 역(1994) :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 체. 게. 융, 김성관(1995) : 《융 심리학과 동양종교》, 일조각, 서울.
- 최길성(1987) : 《무속의 세계》, 정음사, 서울.
- 칼 구스타프 융 編, 이부영 외역(2008) :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 한국교회사연구소 : 《한국가톨릭대사전 9》,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1985) :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
- Alice KT, 이찬수 역(1998) : 《지옥의 역사》, 동연, 서울.
- Edward FE(1985) : *Anatomy of the Psyche*, Open Court.
- _____ (1992) : *Ego and Archetype*, Shambhala, Boston & London.
-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역(2002) : 융 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숲, 서울.
- _____ (2002) : 융 기본저작집 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숲, 서울.
- _____ (1934) : C.W. 8,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35) : C.W. 18, *The Symbolic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46) : C.W. 16, *The Psychology of the Trans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50) : C.W. 9ii, *A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rinceton.
- _____ (1968)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69) : C.W. 11, *Psychology and Relig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_____ (1973) : *Letters*, vol. 1,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Paul R, 양명수 역(1995) : 《악의 상징》, 문학과 지성사, 서울.
- Pratibha SE, 정정순외 2인 공역(2006) : 《모래놀이치료와 수 상징》, 학지사, 서울.
- Sibylle BO(1977) : *The Mother*, Inner City Books, Toronto.
- Von Franz ML(1980) : *Alchemy*, Inner City Books, Toronto.
- _____ (1990) : *Individuation in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London.

Shim-Sŏng Yŏn-Gu 2016, 31 : 1

〈ABSTRACT〉

**A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on 'Yeondo', a Prayer
for Souls in Purgatory of Korean Catholic Church**

Chun Ja Yeo *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symbolism of 'Yeondo', a prayer for the souls in purgatory of Korean Catholic Church as a 'psychic container' for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in the psyche from a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Yeondo' could be the 'rites of passage' of the last judgement for the souls in purgatory which is in between the heaven and the hell. And both the bereaved and the dead go through the stages of separation, transition and incorporation which are the schema of the 'rites of passage'. In particular, they have a special sense of solidarity at the stage of transition, a middle state. The symbolic process of 'Yeondo' is a spiritual transformation of recovery of paradise which could access by the confusion of death, purification and the rebirth. A spiritual reborn process of death and rebirth takes place by contacting the collective unconscious. In 'Yeondo', the death is not the end of life but the beginning of the eternal life. The confusion and disintegration caused by death can be purified and start incorporating. The rites of a paradise recovery has the meaning of trying constantly for the recovery of a wholeness.

Praying for the blessing of God and a help from saints in paradise for the sake of the dead means to require conscious cooperation for the Self-realization. Integrating and recognizing unconscious also means something beyond the conscious. The blessed souls in purgatory recovers the paradise experiencing specific purifying process heading towards Self. Going into the center, abyss of unconscious will be recognized as an absolute part of oneself. One becomes the inner man, the transformed personality who is reached by the path of self-knowledge, the kingdom of heaven within oneself and can have the transpersonal energy, which enables to access to God's world and union

with God. All desire and the will become one with God.

In the final analysis, praying for the blessing of God and a help from saints in paradise for the sake of the dead becomes the path for the more and more conscious expansion of the alive. Therefore, 'Yeondo' as an initiation is the individuation process of the alive and the dead to reflect on themselves.

KEY WORDS : Yeondo · Purgatory · Purification · Rebirth · Individuation.

**Seoul Child Counselling Therapy Center*